

# 외국인을 위한 한국영화 상영회

### 서울 서대문도서관, 한국영화 외국어 자막으로 상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대문도서관(관장 김금자)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신동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상영되는 영화는 우리 영화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들로 특히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 자막이 나온다(영화 1편 당 1개 외국어 자막). 지난 22일에는 지난해 우리 영화 가운데 뛰어난 흥행성적을 거둔 '국가대표(감독 김용화, 주연 이정우

의 6명)'가 영어자막으로 상영됐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상영회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된다. 외국인 뿐 아니라 도서관이용자와 지역주민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도서관 자료봉사과(02-396-3158)로 할 수 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동영상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 '우리말 다듬기'

▷ '이렇게 바꿨어요! (다듬은 우리말)'

'아킬레스건(Achilles 踵)' ▶ '치명(적) 약점'

국립국어원은 '어떠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틀어 이르는 '아킬레스건(Achilles 踵)'의 다듬은 말로 '치명(적) 약점'을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이 주일 동안 '아킬레스건(Achilles 踵)'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437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절대)급소', '결정적 빈틈', '취약점', '최대약점', '치명(적)약점' 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모두 2,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대)급소'는 435명(20%), '결정적 빈틈'은 233명(10%), '취약점'은 404명(19%), '최대약점'은 313명(14%), '치명(적)약점'은 741명(34%)이 지지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치명(적)약점'이 '아킬레스건(Achilles 踵)'의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 어떻게 바꿀까요? ('다듬을 말 투표')

아이젠(eisen)

투표기간 : 1월 19일 ~ 2월 1일

보기 : 눈갑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젠 같은 등산 장비도 필수이다.

의미 : 아이젠(eisen)은, 등산화 바닥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등산 용구를 말합니다. 겨울 산행 시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빙판·눈 위를 걸을 때 사용하는데, 독일어로는 슈타이크아이젠(steigeisen), 영어로 크램폰(crampons)이라고도 한다.

제안 결과 : 국립국어원이 지난 이 주일 동안 '아이젠(eisen)'을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637건의 제안

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넷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투표 중인 후보어

① 눈갑덧신(눈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용구)

② 등산설피(등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용구)

③ 쇠설피(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쇠로 만든 용구)

④ 툽나덧신(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툽나 모양의 용구)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알쏭달쏭 우리말

기도 하였으나... (나도항, 환희)

▷ '몰강스럽다'

▷ '설면하다'

「행」 ① 자주 만나지 못하여 낮이 좀 설다. 위석 달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설면할 것은 없으리만는... <염삼성, 취우> ② 사이가 정답지 아니하다. 위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오늘 아침에 설면하게 하는 것이 분하기도 하고 갑갑하

▷ '버르잡다'

「풍」 ① 파서 헤치거나 크게 벌려 놓다. 위아이는 호미로 흙을 버르잡어 놓았다. ② 숨겨진 일을 밖으로 들추어내다. 위술대없이 지나간 일을 자꾸 버르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 인정이 없이 역세며 성질이 약착하고 모질다. 위그 독살스러운 사람들이 소자료를 그렇게 몰강스럽게 끌어 간단 말야. <한승원, 해일> / 우리의 환경이 너무도 몰강스러운 살풍경이어서, 사람의 마음이 바스러지도록 메마르지 않을 수 없나... <이희승, 먹추의 말잡건>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석 기자

## 당신이 마시는 커피의 진실?

미국사람들이 아침마다 즐겨 마시는 음료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기호식품은?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무역품은? 이들 질문의 정답은 모두 '커피'이다. 커피는 한 해 동안 600억 달러어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모두 90여 개국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커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인구의 두 배인 약 이천만 명에 이른다. 세계 평균 남성은 하루에 1.7잔, 여성은 1.5잔의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의 뒤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커피콩은 100개, 커피콩 100개의 현재가격은 우리 돈 '10' 원.

우리가 커피 한잔을 마실 때 마다 현재지은 '10원'을 번다.

그렇게 해서 과테말라 집단 농장 농민들이 커피콩 100파운드(45kg)를 수확하고 버는 돈은 고작 3천원 남짓이다.

한국에서 커피가격은 300원에서 비싸게는 5000-6000원.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이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커피콩을 생산한 커피농가의 손에 쥐어지는 이윤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이윤은 가공 판매업자와 중간도매상들이 차지한다. 전체 이윤의 93.8%는

극소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몫이다. 나머지 이윤 가운데 4.4%는 운송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고 1.3%는 세금과 중간상의 몫이다.

더욱이 1950년대에 발생한 커피콩 가격의 폭락은 커피농가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었다. 가뜩이나 빈곤과 노동력 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더욱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현지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닌 거래(Trade, not Aid)'였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공정무역이란 선진국의 소비자가 저개발국의 생산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커피공정무역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변두리에 위치한 '그린마운틴 커피로스터(GMCR)'라는 작은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의 공정무역커피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27%로 미국 업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정당한 최저 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현지 생산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아동노동을 근절하며 친환경농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현재 공정무역 커피는 전체교역량의 0.1%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20-30%씩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생활 습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구에는 학생명예기자(인천 인화여고 3학년)

##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 인천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윤혁원 지휘자

인천시립합창단이 2010년 새로운 봄을 맞아 처음 선보이는 연주회는 인천지역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한다.

인천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우효원, 한국의 합창음악을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는 박지훈, 노방주, 김준범의 곡이 인천시립합창단의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되며,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리는 2010년 western division 초청연주와 순회연주에 선보일 프로그램 일부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보기 힘든 다이내믹과 프레이징, 통일된 사운

드를 갖추었다는 평을 받으며 참가한 10여회의 모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인천 최초의 국립소년소녀 합창단인 서구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이후 지속적인 연주활동으로 국내 어린이합창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 함께 하는 이들은 '소월의 봄꽃씨', '사월 한 봄날에', '바람의 손길' 등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상업음악이 만연한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정서가 특색 담긴 창작 가곡의 세계를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 개관

서울시는 1월 28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서울시 창작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을 개관한다.

자생적 예술마을로 알려진 '문래창작촌' 및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개관하는 문래예술공장은 서울 서남권 일대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준공업 낙후지역인 철물공장촌에서

예술창작단지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문래창작촌'에 새로운 문화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이 문을 연다.

서울시 창작공간의 여섯 번째 공간으로 탄생하는 문래예술공장은 옛 철공소 자리에 새롭게 건립된 다목적 창작공간으로, 2009년 10월에 개관한 금천예술공장과 더불어 문화창조 지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 서남권 일대의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래예술공장은 예술창작 지원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문래예술공장은 본격적인 예술창작 지원 공간을 표방한다. 지금까지의 예술창작 지원이 작업장 및 발표장과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 양분되어 왔다면, 문래예술공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 예술작품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지켜보는 새로운 개념의 지원 공간인 셈이다.

한국출판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222면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본 책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9년 3월 이전법률) 빠짐없이 명다하여 반영하였다.
3. 열역별로 1장씩씩씩씩씩씩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강력한 학업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법제 전공자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을 별도로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연구개발정보교육원 (Study.co.kr) 동영상을 강의로 제공도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02) 849 - 6157